

365 PROJECT

서교동 365 번지 나는 이 건물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재개발에서 재발견으로



억대기

철물 · 열식
줄장수리
334-7866

대명 철물
334-7866

조장마차
은실이

김자탕
전문



전고개
향토
보신탕
우리구이
332-2929

삼계탕

복사

건재

삼보신
계탕
전문

숯불
대지
삼이
생

Family

5
단
미
술
교
육

꽃

부
관
사
세
탁

술
로
탈
출

보
신
탕
전
문
향
토
우
리

고기
전

NIX-20

48883





홍익슈퍼
청과
334-8714

꽃배화점

주제사
대명복사AG
정서진AG
복사

유리

감포집

결혼준비
서교
지름장식
336-3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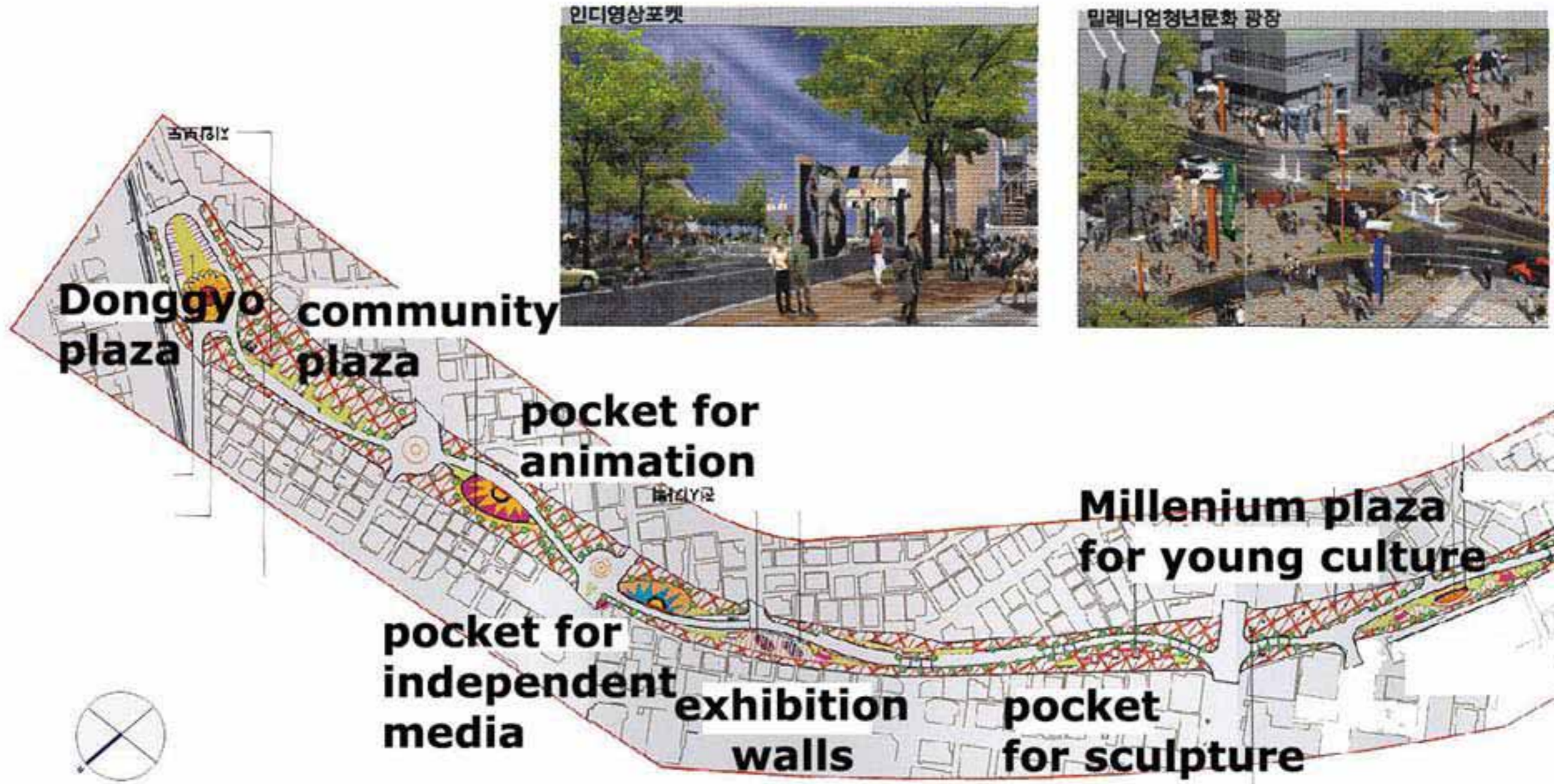
이대면
CHONG HO
OH SAE-GU
HONGKONG

꽃계
다정
대구
정장
마차





철거





소멸



2003



2005



2006

주차장 쪽
강남



2005



2006

호미화방 쪽
강북



2003



2005



2006

2003

2004

2005

2006

2007

마포구 - 철거

365 - 소멸

서울시, 건축가 - 개발

● 상업화반대
철거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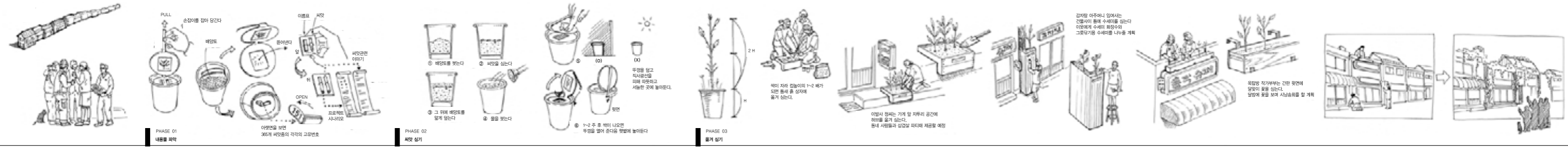
■ 건물훼손 반대
자생적 규제력

● 상업화반대
철거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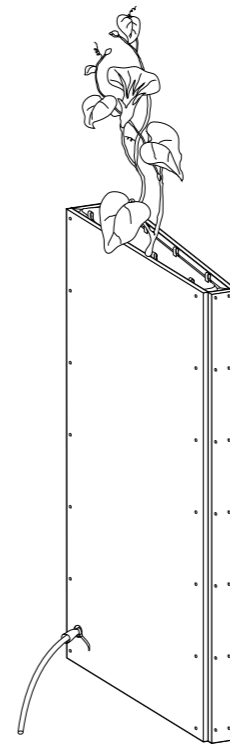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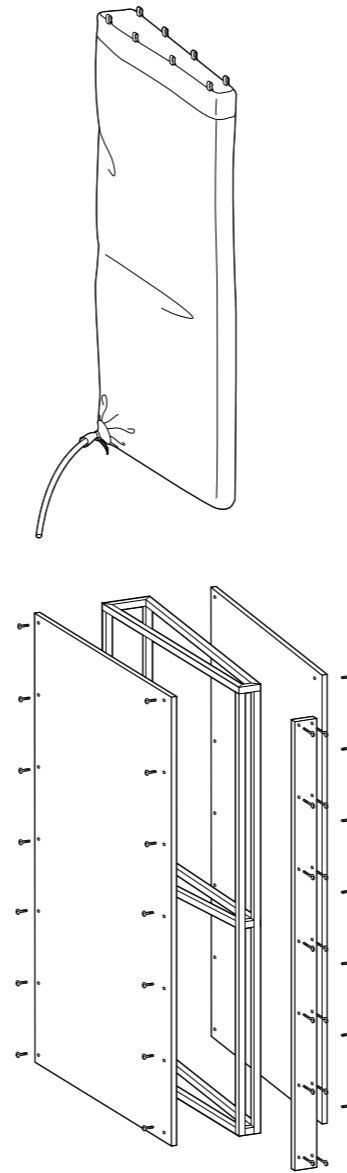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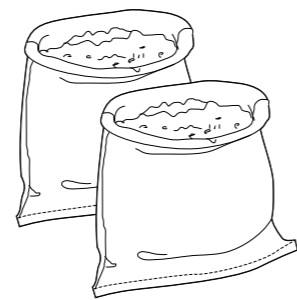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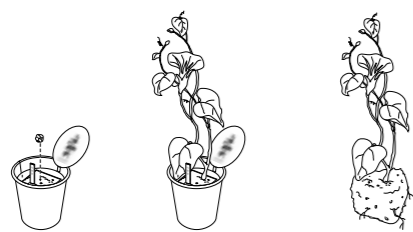
▲ 프로그램개발
리모델링

서교 365 모임

서교 365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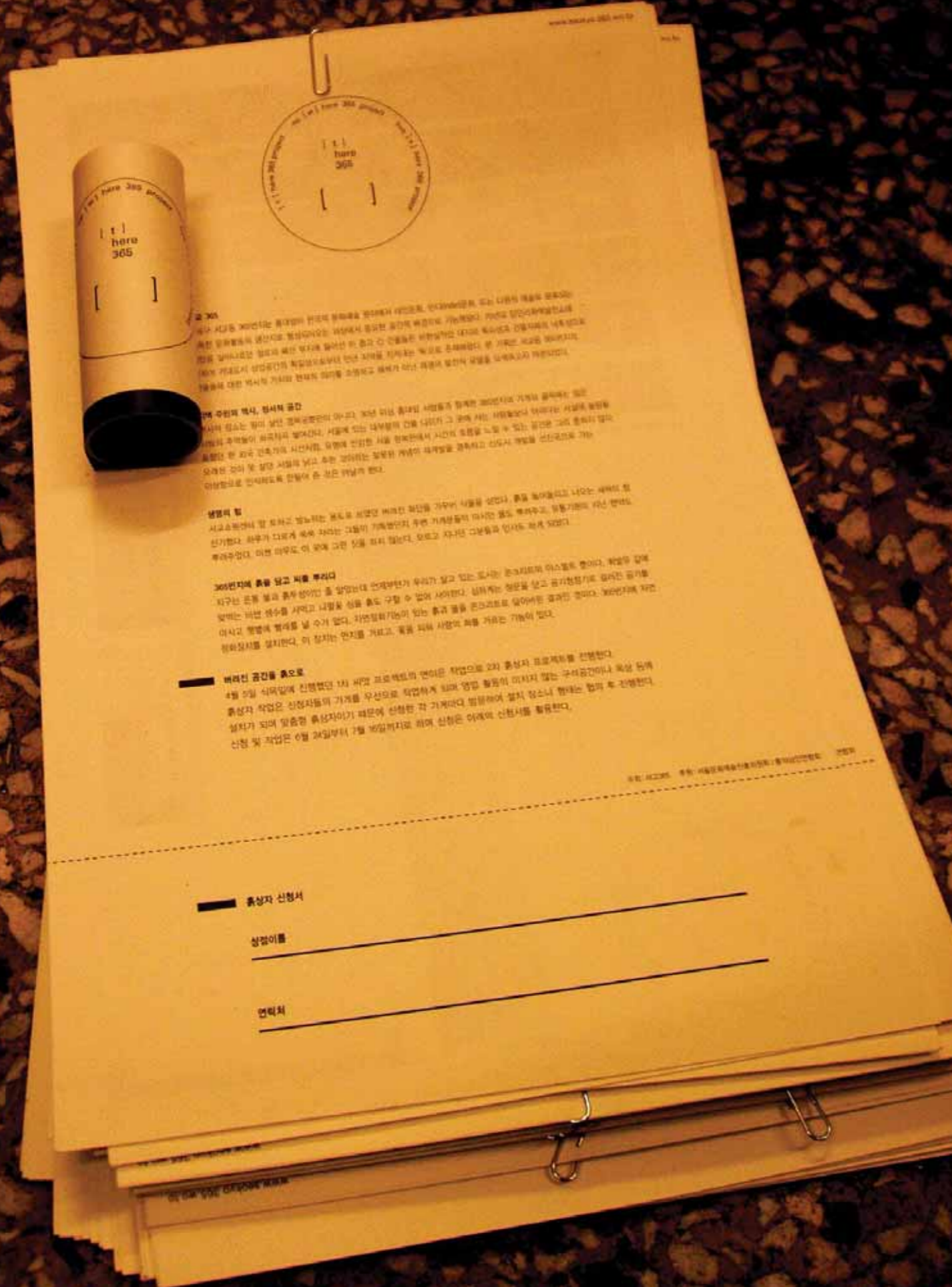




샘플작업 전



샘플작업 후



이 프로젝트는 홍성자 작가의 개인 프로젝트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홍성자 작가의 개인 프로젝트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홍성자 작가의 개인 프로젝트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홍성자 작가의 개인 프로젝트

홍성자 작가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홍성자 작가의 개인 프로젝트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홍성자 작가의 개인 프로젝트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홍성자 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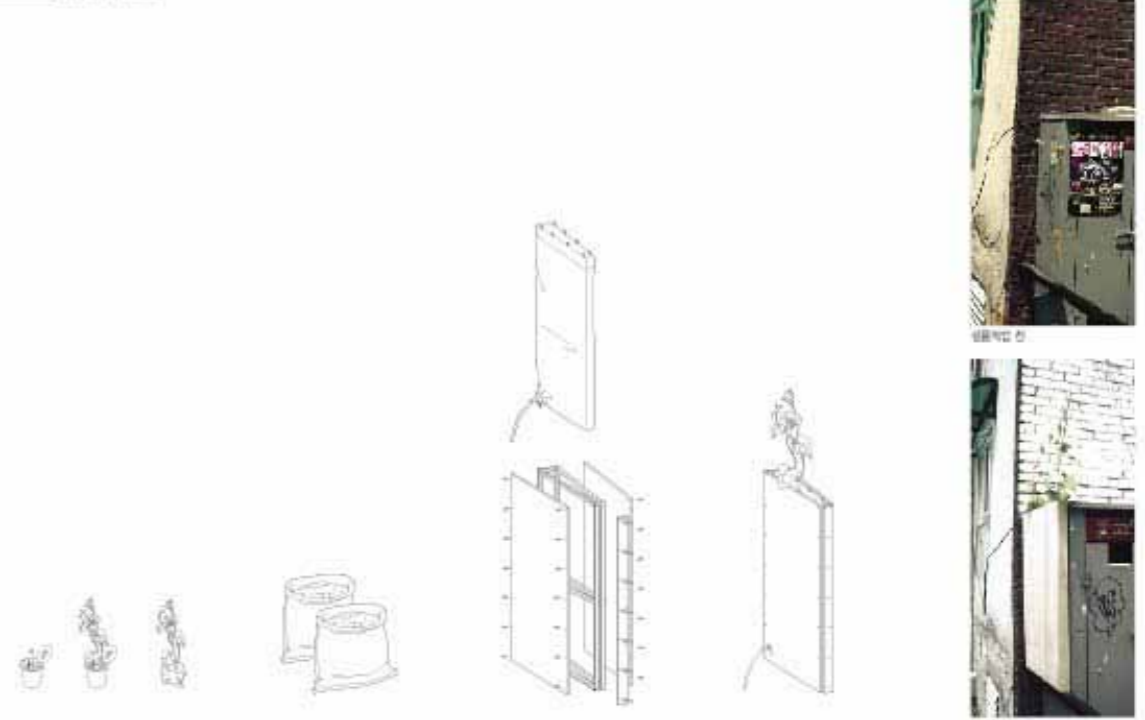
성명: _____

연락처: _____

주소: _____



홍성자 작가의 개인 프로젝트













열매 주머니

내용물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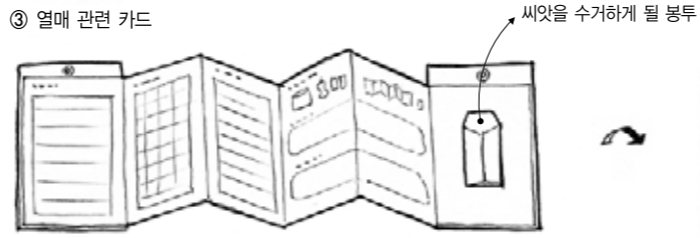
① 주머니
: 차 후 모종을
틔울 흙주머니



② 2006년 9월
수확한 열매들



③ 열매 관련 카드



앞 : 열매관련 이야기, 정보, 처방전, 열매 나눠주기 시나리오, 씨앗수거봉투



뒷 : 열매를 수확하기까지의 진행현장

365 휴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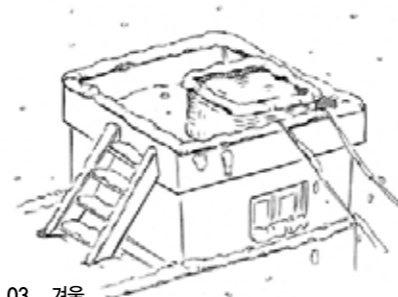
365의 봄, 여름, 가을, 겨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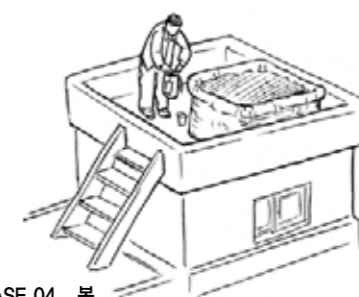
PHASE 01 _ 여름
2006.6.18 - 지금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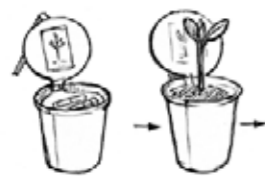
PHASE 02 _ 가을
2006.9.30 : 결실은 거두워지고, 흙은 휴상자로 모인다



PHASE 03 _ 겨울
2006.12.00 다가올 겨울 : 흙은 봄을 기다린다



PHASE 04 _ 봄
2007.4.00 다시찾아온 봄 : 새로운 생명을 담고 각자의 공간으로 간다



2006.04.05
- 씨앗 종이컵 나눠주기
- 종이컵에서 모종틔우기



2006.06.18
싹 틔운 모종 큰곳으로 옮겨심기
-> 매일아침 물주고, 가끔 비료도 준다



2006.09.22
열매들을 수확하여 365 주민들과 함께하기

적합한 용도로 사용한 후
씨앗은 식물카드 뒷장의
봉투에 담아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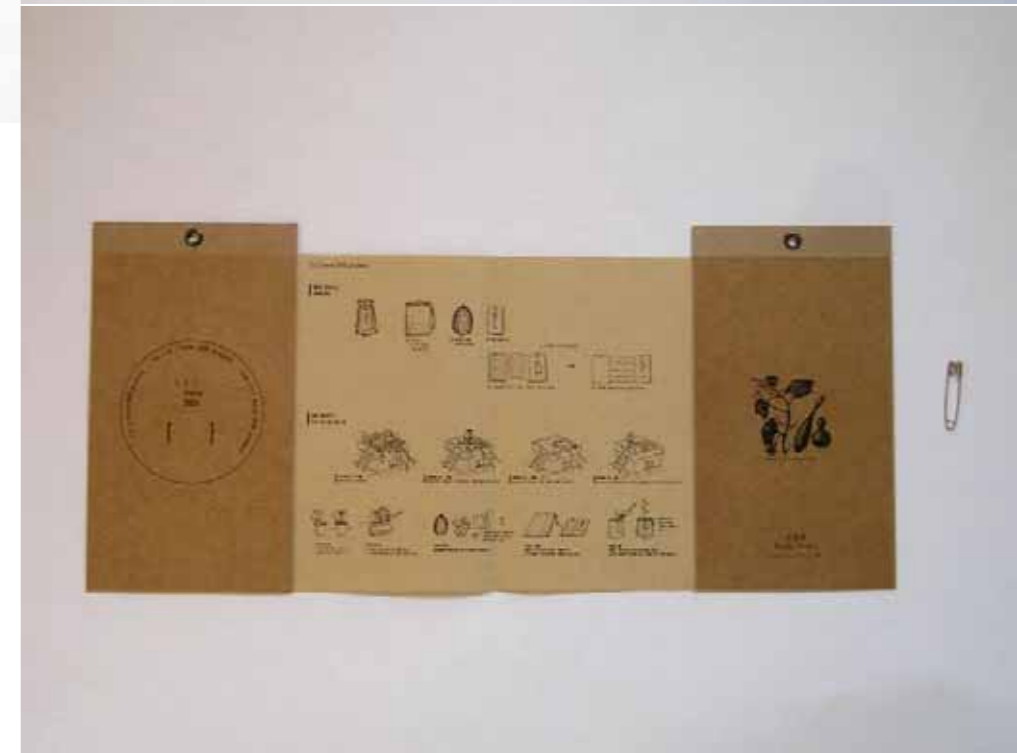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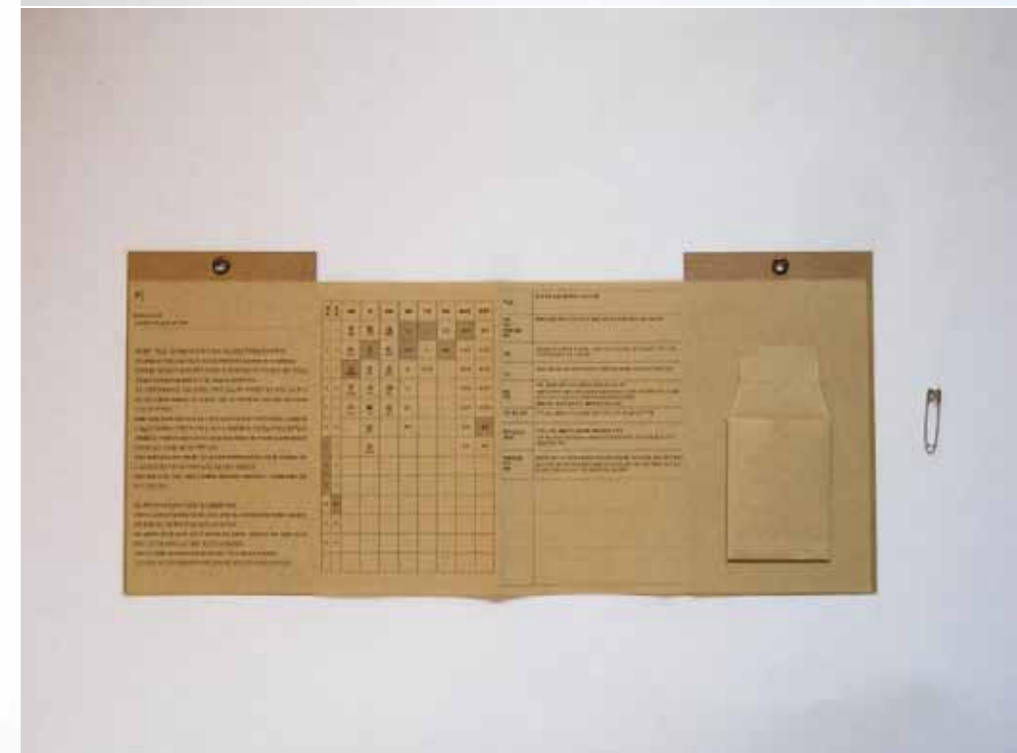


2006. 겨울
열매가 담겨있던 주머니, 열매카드,
수거해놓은 씨앗봉투를 겨울동안 잘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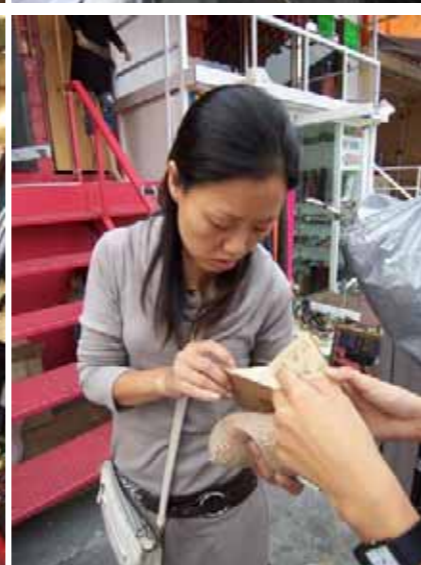


열매카드는
새로 자라날
식물의 이름표가
된다.

2006. 봄
열매가 담겨있던 주머니에 흙을 담는다.
수거한 열매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싹을 틔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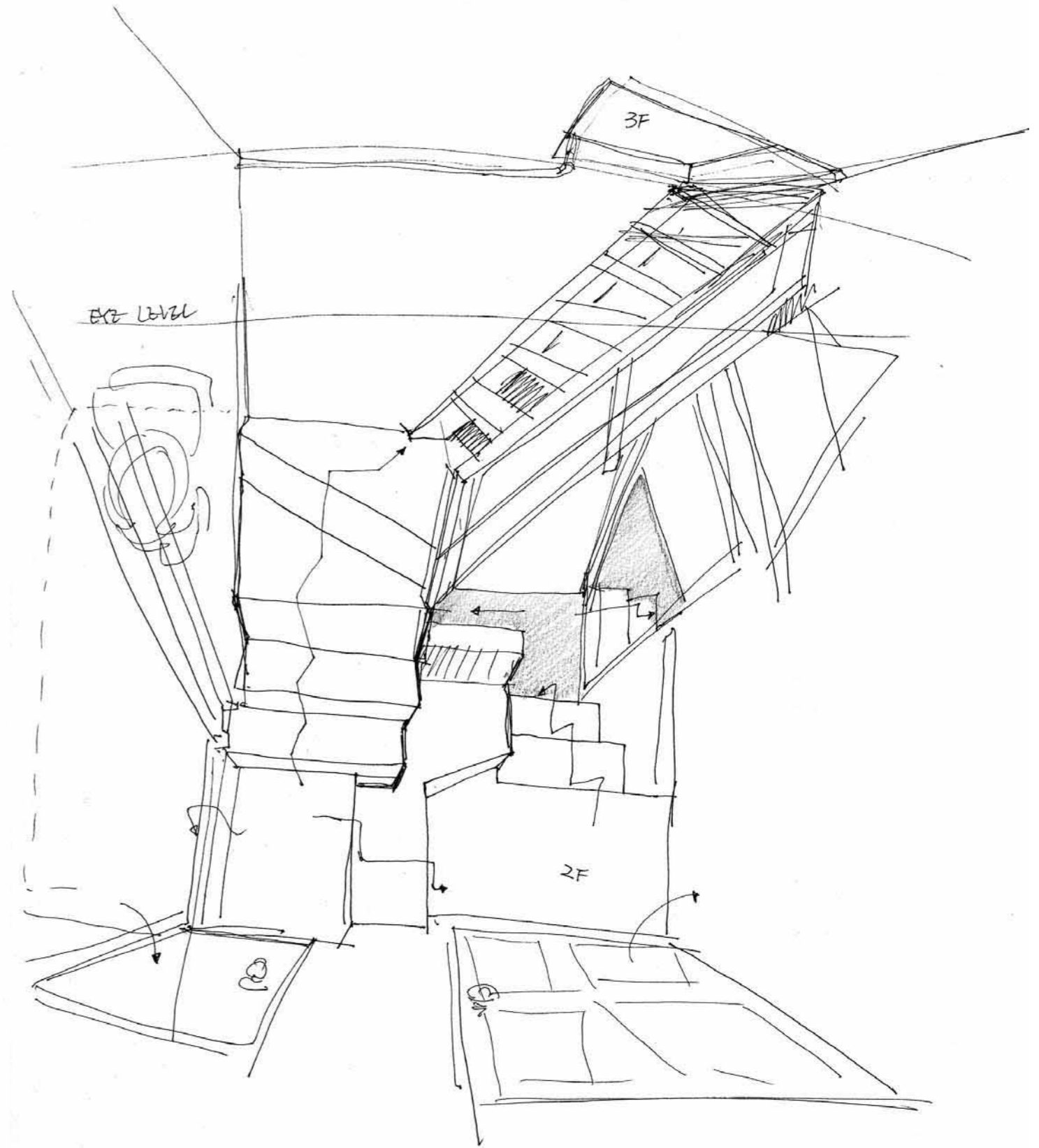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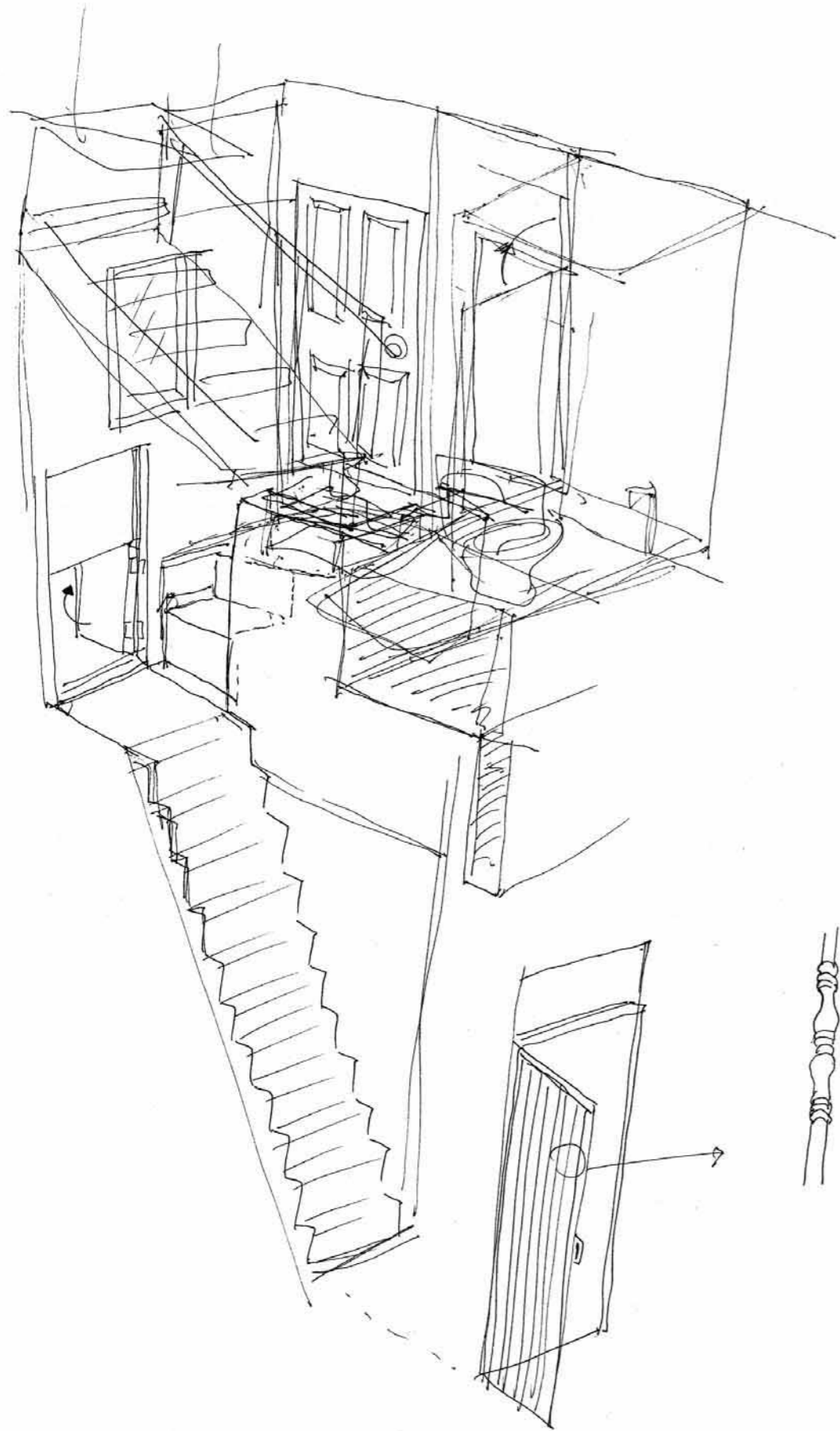












서교동 365번지는,
물방앗간 인근의 문화예술 공간에서 대안문화, 인터디스플리너리, 또는 다문화 예술을 보여주는 독특한 문화활동의 공간으로 발돋움하려는 과정에서 중요한 공간적 특점으로 기능해왔다.
기존에 상업적개발업종에서 개발을 감수하지 않던 문화공간이 들어서던 이 좁고 긴 언덕길은 서점살림과 대안적 특색있는 건물 자체가 비공식적으로 만들어 도시살림업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건 지역을 지켜주는 '벽'으로 존재해왔다. 본 전시는 서울시 도시재개발 사업의 필요로 배정되어 있는 내거 건물들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현재의 기능을 보존하고 재가 아닌 재정의
발견적 역할을 고백하고자 마련되었다.

전시제목 :
서교동365번지 표 '나는 이 건물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일시 :

2006.10.20-11.19

장소 :

365-3a : open studio 01

365-3b : open studio 02

365-12 : open studio 03

365-13 : open space 01 + 365 archive

365-17 : open space 02

365-21 : open space 03

문의처 :

서교365

홍익상인연합회

gaga@naver.com

guru

문화재단

02-334-3556

지역적 상이점

문화의 거리

이탈

재건축

서교동

주소 :

서교365

문의 :

한국문화재단

홍익상인연합회

문의 :

02-334-3556

www.seokyo365.co.kr



서교동 365번지 나는 이 건물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전





